OPEN ACCESS

도서관주간의 비교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and Activation Plan of Library Week

심 효 정 (Hyojung Sim)*
노 영 희 (Younghee Noh)**

목 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국내외 도서관주간 사례 분석
4.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
5.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게 된 것과 관련해 196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주간의 의의와 역사, 국내외 도서관주간 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서관주간의 효율성 있는 운영방식, 프로그램 구성의 변화, 홍보전략의 다각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명예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행사 운영방법 제시, 이색적인 기념행사, 전국 동시 캠페인, 아카이빙, 상시 홍보 채널 및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3년 시행될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decision to designate April 12 as the Library Day and the week from that day as the Library Week starting in 2023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Libraries Act, suggests ways how the Library Week could be activation pla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eaning and history of the Library Week which started in 1964 and cases of the use of library week at home and abroad. The uses of library week at home and abroad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suggestions for promoting the Library Week, were made in terms of three aspects - efficient methods for using the Library Week, changes in programs, diversification of promotional strategies. This paper suggests in order to promote the Library Week, various ways of running events, online and offline platforms, honorary ambassadors, unique commemorative events, national campaigns, archiving and all-year-round promotional channels and system are needed.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for promoting the Library Day and Library Week that will start in 2023.

키워드: 도서관주간, 도서관법, 도서관의 날, 도서관 마케팅
Library week, Library act, Library Day, Library Marketing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강사
(shjcap75@hanmail.net / ISNI 0000 0004 5932 7729)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2년 4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5월 2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157-177,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2.157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코로나19 등으로 도서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도서관 이용률도 낮아지고 있으며[1] 도서관을 우회하는 현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도서관들도 시대의 변화와 요구, 각종 정보매체의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이용자들의 지식과 정보 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서관의 가치와 가능성 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도서관들도 적극적으로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해 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 즉, 도서관의 사회적 존재 이유와 가치,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도서관주간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침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될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에 의미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42조(도서관의 날)인데 1항에서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항은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도서관주간은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들과 함께 진행해 온 대표적인 도서관 프로그램의 하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주간 표어를 선정하고, 포스터와 표어를 전국도서관에 배포해 도서관주간을 홍보하는 일에 힘썼으며 전국 도서관들은 도서관 홍보와 함께 이용자들을 위한 특색있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진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관주간 행사는 많은 종류의 도서관들 중 공공도서관 위주로 진행되어왔고 전국의 도서관들이 같은 기간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내용이 잘 공유되지 않으며 도서관주간 행사를 위한 지원과 예산 등이 풍부한 편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 일회성 행사 위주로 기획되고 적극적인 홍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상황도 도서관주간 행사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여러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오랜 기간 매년 진행되어 온 도서관주간 행사가 2021년 12월 「도서관법」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도서관의 날" 신설로 향후 새롭게 진행되는 만큼 도서관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서관과 사서

1)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다르면 도서관 이용률은 성인의 경우 16.9%, 학생은 46.0%로 2019년 조사에서의 각각 23.9%, 60.8%에서 7%포인트와 14.8%포인트가 감소했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성인은 "책을 읽지 않는다, 일이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 집에서 멀다"를, 학생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 집에서 멀다, 공부로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라고 응답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출판연구소, 2021, 161,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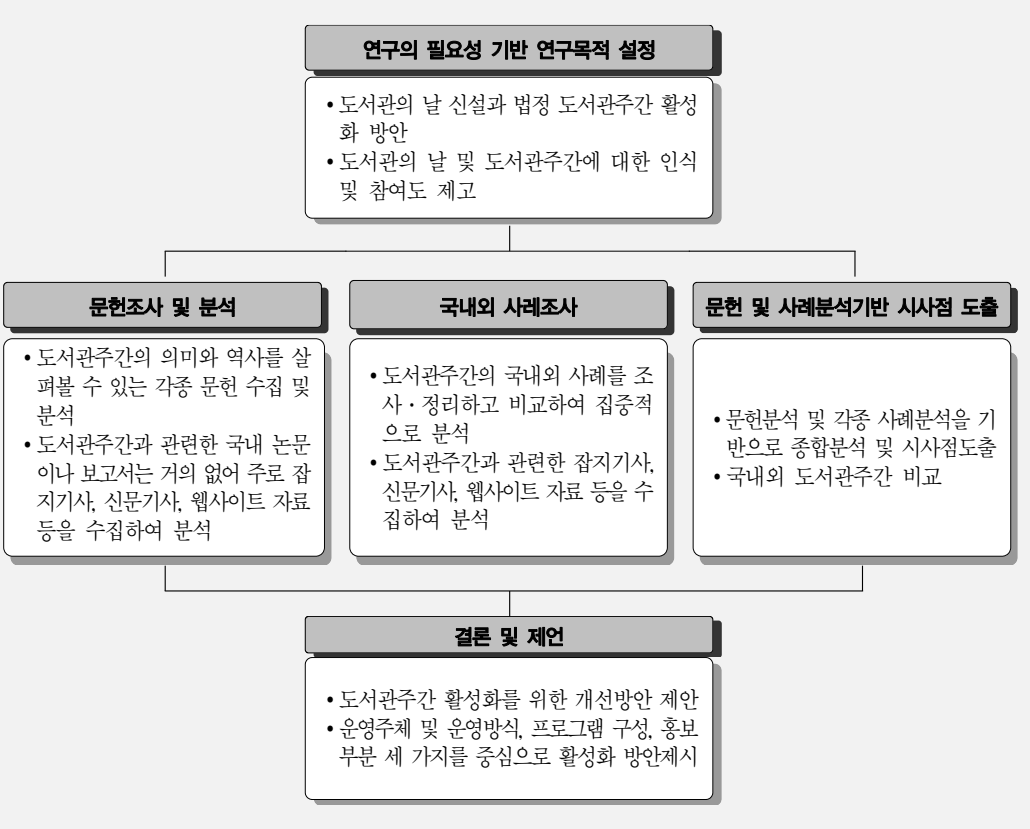
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주간의 의의와 역사, 국내외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의 날 신설과 법정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서관주간의 의의와 역사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외 도서관주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및 분석 방법으로 도서관주간에 관한 문헌들을 총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했다. 도서관주간의 의미와 역사,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도서관주간과 관련한 국내외 논문이나 보고서는 거의 없어 주로 잡지기사, 신문기사, 웹사이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조사·분석한 문헌연



〈그림 1〉 연구절차 및 내용

구를 바탕으로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도서관주간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본 연구자의 논문이 도서관주간과 관련한 기초 연구 논문 중 하나이며, 향후 관련 연구가 더욱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도서관주간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주간의 의의와 역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주간'은 도서관의 설립 및 도서관 이용자의 증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제고, 도서관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에 설정한 주간을 말하며, 시기는 매년 동일하게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1964년에 시작된 '도서관주간'은 1967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로 1회 미개최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해 꾸준히 실시되어 2022년에 58회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전국의 도서관들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왔다.

도서관주간의 역사적 배경은 한국도서관협회 기관지 〈도협월보〉등의 기사 등을 참고해 살펴볼 수가 있다.

1960년 〈도협월보〉 4월호(제4권 제1호)에 '미국의 도서관주간(National Library Week)'이라는 제목의 글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958년 4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도서관위원회가 전 국민 독서운동을 전개했고, 1960년 제3회 행사는 '신비의 새 세계를 열어라(Open Wonderful New World)'라는 주제로 4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도서관주간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독서주간과 동일한 행사로 향후 우리나라 독서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어 미국의 도서관주간을 소개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서주간이라는 행사가 1949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해 제정되어 매년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다.[2)]

1960년 당시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주한 미군도서관의 도서관주간 행사를 참고하고 한국과 미국 사서들의 도서관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그 1년 전인 1959년에는 미국 도서관주간 기간 중에 당시 피바디사범대학 교육사절단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스와이거(Ethel Swiger) 여사가 도서관주간 표어였던 'Wake Up and Read!'라는 제목으로 미국문화원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2) 독서주간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도하면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관련단체 등과 함께 추진해 온 독서생활화 프로그램이었다. 1995년 새로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독서의 달'로 확대 개편되면서 독서주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이용남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4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친숙한 이름이 보다 큰 모습의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비록 발전적인 확대 개편 임에는 틀림없으나 정서적으로 아쉬운 감이 들고,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안이하게 타성에 젖어 독서주간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됨은 도서관인의 공통된 느낌일 것이다. 마치 국민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소년이 앞날에 설레임도 느끼지만, 지난날의 면면에 아쉬움과 섭섭함을 지울 수 없는 느낌과 같다는 생각이다."라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이용남, 1994, 2).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서관주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독서주간을 정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구하던 때라 미국의 도서관주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계기로 1964년 〈도협월보〉 1・2월호(제5권 제1호) '도협소식' 코너에 처음으로 '도서관주간설정 취지문'과 '도서관주간 행사실행계획(안)', '도서관주간 포스타 현상모집' 공고문을 수록했다.

1964년 〈도협월보〉 4월호(제5권 제3호)에 게재된 내용을 살피면 제1회 도서관주간은 첫 번째 행사인 만큼 한국도서관협회도 많은 준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방송국 좌담회, 동아방송국, 문화방송국에서 도서관주간 홍보 방송, 전국공공도서관장회의,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 것을 보면 방송, 언론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서관주간은 국민들에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1964년부터 전국도서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온 도서관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2022년에도 "도서관, 책과 당신을 잇다"라는 주제로 전국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3. 국내외 도서관주간 사례 분석

3.1 국내사례

1964년에 시작된 도서관주간은 1967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로 미개최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실시되어 전국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매년 각 도서관에 배포하는 공문 및 도서관주간 행사 계획서(안)에 따르면 도서관주간에는 전국의 도서관별로 도서관주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표 1〉 참조)로 도서관 활동을 소재로 한 각종대회, 모범이용자 표창, 이용자와의 만남, 각종전시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도서관음악회, 낭독회, 인형극, 도서물물교환 장터 운영, 과월호 잡지 무료 배포, 책 만들기, 도서관 이용 수기, 독서사진 공모, 도서관 홍보 SNS 활용 이벤트, 한 책 릴레이, 도서관보물찾기, 어린이 1일 사서체험, 지역도서관 지도 제작, 각종 책 목록 제작,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 마련,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기념행사 등 각 도서관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제57회 도서관주간 행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90개 행사프로그램 계획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 공공도서관이 98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행사의 종류는 강연 347개, 공연 29개, 이벤트 249개, 전시 및 체험 288개, 공모 3개 등 분야별로 다양한 행사를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방식 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2021년에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앞두었던 때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협력방식으로 도서관주간 홍보를 함께 진행했다. 도서관주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주간 기념행사를 마련했으며 별도 제작된 홈페이지를

〈표 1〉 도서관주간 주요 프로그램(한국도서관협회, 2019; 2021)

-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행사: 강연회, 전시회, 북콘서트 등
-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 책 읽기를 통한 장애 체험, 장애우 도서관 나들이, 다문화 가족 앨범 만들기
- 도서관 활동을 소재로 한 각종 대회: 독서퀴즈 대회, 도서관 소개 대회, 도서관 삼행시 짓기 대회, 독후감 대회
- 분야별 우수 이용자(아동, 성인, 노인, 다문화가족), 자원활동가, 모범 직원 표창
- 이용자와의 만남: 도서관장, 직원과 이용자들의 만남의 자리 마련, 이용자들의 도서관 인식 조사,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들의 친선 운동회
- 각종 전시회: 독서포스터, 그림책, 원화전시 등
- 강연회: 작가, 과학자, 음악가 등
- 특별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연장운행
- 영화 감상회, 도서관 음악회, 낭독회, 인형극 등
- 장서기증운동, 도서 물물교환 장터 운영, 과월호 잡지 무료배포
- 책 만들기, 내손으로 우리할머니 큰 책 만들기, 서평나무 만들기
- 도서관 이용 수기, 도서관에 소원 말하기, 독서(도서관)사진 공모
- 파손도서 전시회
- 도서관주간에 회원 가입한 신규회원 기념품 증정
- 한 책 릴레이, 어린이 1일 사서체험, 도서관 보물찾기
- 지역 도서관 연계: 지역도서관 지도 제작, 각종 책 목록 제작
- 기타: 위에 예시된 행사 외에도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실시하도록 유도

통해 도서관별 도서관주간 행사 계획 및 결과보고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지도, 도서관주간 소식이나 관련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고 SNS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도서관주간 홍보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2022년에도 2021년과 비슷하게 도서관들의 자발적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공식 포스터 및 표어 배포, 홈페이지 운영, 언론홍보, SNS 홍보 및 이벤트, 도서관의 날 기념 공식 행사 등을 진행한다.

그동안 도서관주간은 운영을 위한 홍보예산 등의 부족으로 전국도서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해당 기간 중 한국도서관협회는 행사주제 및 표어, 포스터를 선정·배포하고, 실질적인 활동은 개별도서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 보니 도서관주간 기념행사 등 대국민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또한 기존 도서관주간 행사가 공공도서관 위주로 이루어져 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의 참여가 저조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년과 다른 형태로 도서관주간 홍보 등을 진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좀 더 내실 있는 다양한 관종의 참여 유도, 대국민 참여 확산 등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2 해외사례

3.2.1 미국

미국의 도서관주간(National Library Week)은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미국출판협회(AAP)가 1954년 전국도서위원회를 함께 구성하면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1958년부터는 미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매년 4월 둘째주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도서관주간이 정해졌다. 도서관 이용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되었으

며 공공,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 등 모든 관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한 2003년부터 매년 도서관주간의 화요일을 도서관 노동자의 날(National Library Workers Day)로 정해 도서관 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10년부터는 도서관주간의 수요일은 '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의 날'(National Library Outreach Day, formerly National Bookmobile Day)로 정하고 미국 전역의 이동도서관과 아웃리치 서비스를 기억하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도서관 전문가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도서관주간의 목요일은 청소년 문학의 날로 정해 청소년 문학 장르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에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 "도서관과 연결"이라는 주제로 도서관주간 행사가 진행되며 여러 에미상 후보와 스피리트 상을 수상한 여배우이자 코미디어인 몰리 샤논(Molly Shannon)이 명예의장으로 활동한다. 도서관은 책 이외에 미디어,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과의 연결 및 기회를 제공하기에 도서관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서로 연결한다는 중요한 의미로 이번 도서관주간의 주제를 선정했다. 4월 7일(수)은 도서관 행동의 날(Take Action for Libraries Day)로 정해 시민들과 함께 정책결정자나 담당자에게 도서관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3.2.2 영국

영국은 도서관의 날(National Libraries Day) 행사가 있는데 2011년 Save Our Libraries Day[3]의 성공을 발판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도서관의 날(National Libraries Da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서관의 날 행사는 도서관인과 정보전문가들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도서관 직원 및 정보전문가들에게 이용자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도서관의 날 전후로 영국 전역의 도서관에서 일주일 동안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도서관 및 행사 정보를 구글맵과 연동해 제공하고 있으며 릴레이 독서 행사, 책 등장인물 코스프레 경연대회, 런던 도서관 역사 투어, 지역 작가 초청 강연, 해리포터 관련 퀴즈대회, 레고로 자신만의 도서관 만들기, 셰익스피어 모노드라마와 강연, 도서관 보물찾기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도서관의 날 진행 실무위원회는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독서연맹(Reading Agency), 학교도서관협회(School Library Association), 도서관장협회(Society of Chief Librarians)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진행한 여러 행사 중 2019년부터 진행한 #Library5 캠페인 행사가 주목할만하다. 요일별로 테마나 주제를 정해 주제와 관련된 뉴스나 사진을 SNS 등에 게시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 2021년은 첫째 날 독서, 둘째 날 젊은 세대를 위한 서비스, 셋째 날 디지털도서관, 넷째 날 독서 챔피언, 다섯째 날 도서관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2022년에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도서관주간이 개최된다.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는

3) 예산삭감으로 인해 폐쇄 위기에 처한 400개 이상의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 낭독회, 작가 행사 등 각종 이벤트와 캠페인을 진행

‘@librariesweek’, ‘#LibrariesWeek’ 등을 통해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도서관들의 도서관주간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2 캠페인 시작하기 가이드’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유용한 템플릿, 이벤트 및 활동 계획, 마케팅,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도서관주간 준비를 위한 계획 세우기, 마케팅, 정치인 및 의사결정권자들의 참여 유도, 언론보도 방법, 행사 평가 등의 각종 템플릿과 정보, 준비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도서관주간 행사를 준비하는 전국의 도서관들에 실무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2.3 독일

독일은 1995년부터 매년 10월 24일 ‘도서관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도서관의 날은 1828년 10월 24일 작센주 하인에 독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한 날이기도 하다. 도서관의 날에는 지식의 저장고이자 정보의 매개체, 문화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가 진행되며 독일 전역의 모든 관종의 도서관이 참여한다. 2021년에는 도서관의 날을 위한 트위터 마라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도서관에서 무슨일이”라는 의미의 ‘#TagderLibraries21’ 및 ‘#Twittermarathon’ 해시태그로 일상에서 재미있고, 궁금한 것들을 트윗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독일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의 날에 ‘올해의 도서관 상’을 수여하며 개인에게는 도서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서에게 프레우스커 메달을 수여한다. 이 상은 독일 사서에게 수여하는 가장 가치 높은 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도서관의 날에 칼 벤자민 프레우스커(Karl Benjamin Preusker)[4]를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서관의 날 도입 이후 많은 독일의 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도서관을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2.4 캐나다

캐나다는 1958년 국립도서관주간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어나서 읽어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이후 도서관주간 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4월 미국 도서관주간과 동일하게 계획하여 진행해왔다. 이후 도서관주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미국 도서관주간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다가 2005년 캐나다도서관협회가 캐나다 도서관주간(Canadian Library Week)을 도입했다. 2006년부터는 도서관주간을 좀 더 긴 기간 동안 진행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주에서 월로 변경했다. 현재는 매년 10월 한달 간을 도서관의 달(Library Month)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공모하며 캐나다 각주별로 도서관의 달에 도서관주간(Library Week)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10월 셋째 주 금요일을 캐나다 도서관 직원의 날(Canadian Library Support Staff Day)로 정해 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기념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0월 넷째 주 월요일은 학교도서관의 날로

4) 벤자민 프레우스커(Karl Benjamin Preusker, 1786-1871)는 19세기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선구자이며, 1828년 10월 24일 작센주 그로센하인(Grossenhain)에 독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했다(Wikipedia, 2021).

정하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 도서관주간은 건강, 웰빙, 컴퓨터 기술, 육아 등 사회 현상들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도서관이 캐나다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다.

3.2.5 호주

호주 도서관주간(Australian Library Week)은 호주도서관홍보협의회(Australian Library Promotion Council, ALPC)의 후원하에 1968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ALPC가 1980년대 후반을 끝으로 해산된 후, ALIA(호주도서관정보협회)가 호주 도서관주간(Australian Library Week)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 ALIA가 '도서관정보주간(LIW)'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도서관정보주간(Library and Information Week)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주간 중 월요일은 취업의 날로 직업에 대한 조언, 학업 경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운영한다. 화요일은 전국 도서관기술인의 날(National Library Technicians' Day)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LibTechDay'를 팔로우 해 사서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수요일은 전국 동시 스토리타임을 운영하고, 목요일은 모금의 날로, 금요일은 호주도서관정보협회의 날로 운영한다.

도서관주간에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 전문지식과 기술, 정보 접근을 확보하는데 다뤄야 할 주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도서관의 다양한 자원과 시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알려준다. 전국 도서관에서는 작가 초청 낭독회, 지역 인사 초청 강연회, 이야기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에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3.2.6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서관주간(South African Library Week, SALW)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월 20일이 속하는 주를 도서관주간으로 지정했다. 1818년 3월 20일은 최초의 공립도서관인 남아프리카공립도서관(현재는 남아프리카 국립도서관[케이프타운 캠퍼스]) 개관을 기념하는 날이다. 또한 3월 21일은 '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날이다.

도서관주간 행사는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알리는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문해력 증진, 기본적 인권 실현에 있어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주간에는 전국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 도서관주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 ReImagine! RePurpose! ReDiscover.... Libraries!"이다. COVID-19 전염병의 영향으로 그동안 도서관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도서관의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적극활용하며 도서관이 주는 혜택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3.2.7 인도

인도 도서관주간은 1968년에 시작되었으며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를 도서관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11월 14일을 국립도서관의 날

로, 8월 12일을 국립사서의 날로 각각 제정했다. 도서관주간은 인도도서관협회 주최로 진행되고 전국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한다. 도서관주간 프로그램은 에세이 쓰기, 퀴즈대회, 작가와의 만남, 스토리텔링, 서평 쓰기, 워크숍, 어린이 도서 박람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에세이 쓰기 경연대회 등은 시니어와 주니어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식을 개최한다. 2021년에는 "당신의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주제로 전국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인도의 도서관주간 역시 도서관의 중요성과 사서들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인도는 도서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계적인 학자 랑가나단이 출생한 국가로 도서관주간에 랑가나단을 추모하는 간단한 의식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3.2.8 기타

오스트리아의 도서관주간은 "Meeting Point Library"라는 행사로 진행하며 2022년에는 17번째 행사가 진행된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스트리아 최대 문학 축제로 수많은 작가들이 현재 출간하고 있는 책을 선보이며 그램책 영화관, 책벼룩시장, 문학카페, 운영 등 독서 및 도서관과 관련한 행사를 많이 개최한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도서관협회가 조직한 국립도서관의 날 행사를 2012년부터 매년 9월에 진행한다. 이탈리아의 국립도서관의 날은 지롤라미니(Girolamini)도서관의 고문서 절도 사건에 대한 분노를 계기로 2012년에 시작되었다. 도서관주간은 사서의 자긍심 고취와 도서관 홍보의 일환으로 매년 도시를 옮겨가며 진행한다.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작가와의 만남, 책과 독서를 중점으로 한 경연대회, 뮤지컬, 어린이 활동, 독서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뿐 아니라 교도소도서관, 도서관 관련 기관까지 폭넓게 진행한다.

핀란드는 매년 3월 19일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진행한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과 이용자,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서관의 특별한 서비스와 교육, 평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3.3 해외사례 종합분석 및 시사점

위에서 조사한 해외 도서관주간의 운영사례를 명칭, 역사 및 시기,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주요프로그램, 특징 및 홍보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주간의 명칭은 도서관주간과 도서관의 날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주간의 역사는 1954년 미국이 가장 먼저 진행했으며, 1958년에 시작한 캐나다가 두 번째, 1968년에 시작한 인도가 세 번째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주간 시행 시기는 3월, 4월, 7월, 10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운영 주체는 대부분이 각 나라 협회가 주도해 진행하고 있었으나, 도서관주간 실행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도 있고 유명인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하는 사례도 있다.

〈표 2〉 해외 도서관주간의 운영사례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인도
명칭	도서관주간	도서관의 날	도서관의 날	도서관의 달	도서관정보주간	도서관주간	국립도서관주간
역사 및 시기	1954년 시작, 4월 둘째주 일요일-토요일	2011년 시작, 2012년 명칭 변경	1995년 시작, 10월 24일	1958년 국립도서관주간 시작, 3월 16일-22일, 4월 미국도서관주간과 일치하여 계획, 2005년 도서관주간 도입, 매년 10월 한달 간	1968년 시작, 5월 마지막 주	2002년 시작, 3월 20일이 속하는 주, 3월 21일 인권의 날 기념	1968년 시작, 11월 14-20일
2022년 시기와 주제	4월 3일-9일, 주제: 도서관과 연결	10월 3일-9일, 주제: 미정	게시 안 됨, 주제: 미정	10월 한 달 간, 주제: 미정	7월 25일-31일, 주제: 미정	3월 14일-20일, 주제: ReImagine! RePurpose! ReDiscover.... Libraries	게시 안 됨, 주제: 미정
운영주체 및 운영 방식	미국도서관협회・미국출판협회, 화요일: 도서관 노동자의날, 수요일: 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의 날, 목요일: 청소년 문학의 날, 배우 등 유명인을 명예의장으로 위촉, 홍보활동 진행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독서연맹, 학교도서관협회, 도서관 장협회로 구성, 요일별 테마를 정하고 행사를 진행, #Library5를 정해 도서관주간 트위터 캠페인을 진행, 주간 기간 매일 주제를 선정, 도서관 트위터에 그들이 일하거나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한 뉴스와 사진을 공유	독일도서관협회, 전국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 진행	캐나다도서관협회, 도서관주간실행위원회 구성, 월요일: 학교 도서관의 날, 금요일: 도서관 직원의 날, 퍼스트 네이션스 공공도서관 주간(창의적인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온타리오 공공도서관 주간 운영	호주도서관정보협회, 월요일: 취업의날, 화요일: 도서관기술인의 날, 수요일: 전국동시 스토리 타임, 목요일: 모금의 날, 금요일: ALIA 데이	남아프리카도서관협회(LIASA), 전국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 진행	인도도서관협회(ILA), 전국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 진행
주요 프로그램	월요일: State of America's Libraries Report 발표, 2021년 금서 10권 리스트 공개, 수요일: 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와 헌신적인 도서관 전문가 기념(이전에는 이동도서관의 날이었음), 목요일: 도서관 행동의 날 운영	릴레이 독서 행사, 책 등장인물 코스프레 경연대회, 런던 도서관 역사 투어, 지역 작가 초청 강연, 해리포터 관련 퀴즈, 레고로 자신만의 도서관 만들기, 셰익스피어 모노드라마와 강연, 도서관 보물찾기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 2021년에는 월: 우수교수와의 커뮤니티, 화: 당신의 삶을 바꾼 책, 수: 도서관전문가 포럼, 목: 시의 날, 금: 커뮤니티 운영(책 목록 공유, 회원만나기등)	트위터 마라톤 행사, 미디어전시, 그림책 숍, 그림책 낭독, 그림책과 하는 야간산책, 인형극장, 문학-음악 프로그램, 도서벼룩시장, 창의체험, 어린이 실험, 온라인 세미나 등 개최	고품질 어린이 프로그램(스토리타임, 방과 후 클럽), 박물관 및 예술 패스(3개월간 도시 전역의 일부 박물관 및 문화기관에 무료 입장), 읽기 및 숙제 도움 프로그램, 건강, 웰빙, 컴퓨터 기술, 육아 등 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한 행사 기획	월요일: 취업의날, 화요일: 도서관기술인의 날, 수요일: 전국동시 스토리 타임, 목요일: 모금의 날, 금요일: 호주도서관정보협회의 날(ALIA Day)	도서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200단어 이내로 단락이나 에세이를 작성 후 제출 우수작 시상	에세이 쓰기, 퀴즈대회, 작가와의 만남, 스토리텔링, 서평쓰기 등의 프로그램 진행
특징 및 홍보	유명인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해 각종 홍보 활동 진행, 요일마다 주제가 있는 행사 진행,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템플릿 제공, #MyLibrary, SNS 등에 올린 우수 게시물 선정 시상 운영사례	도서관 및 행사정보를 구글맵과 연동해 제공, 도서관주간 준비를 위한 유용한 템플릿 제공(마케팅, 언론보도 등에 대한 주요 팁 제공) Libraries Week 웹사이트 별도 운영,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각종 템플릿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librariesweek, #LibrariesWeek	올해의 도서관상, 프레우스커메달(사서상) 수여,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각종 템플릿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Library Day21, #TagderLibraries21, #Twittermarathon	많은 학교에서도 참여, 어린이들의 독서활동 격려를 위한 독서챌린지대회 개최,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중요성 홍보, 2017-2018년 "방문하면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주제로 도서관의 중요성 알림, 온타리오도서관협회에서 전국도서관에서 사용할 책갈피, 포스터, 그래픽 제작 및 배포, #canadianlibrarymonth #onecard #onemillionpossibilities #CLM	요일마다 주제가 있는 행사 진행,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각종 템플릿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LIW, #LIScareers, #LibTechDay *도서관주간 기간 중은 아니지만 사서격려 수상 프로그램 등, 수상 종류 다양	도서관주간 공식 행사 있음, 협회장 개회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조연설 등 행사 진행, IFLA 회장 인사말, 시인, 도서관장등의 인사말 등은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포스터, 책갈피, SNS 홍보용 파일, 데스크탑 배경화면 사용 파일 등을 다양하게 제공, 유튜브채널로 런칭 이벤트 행사 등 도서관주간 홍보(https://youtu.be/o12Je5vLEsY)	에세이 쓰기 대회, (시니어, 주니어 부문), 포스터 만들기 대회(시니어, 주니어 부문), 스토리텔링대회(시니어, 주니어 부문), 서평공모전 등의 경연대회 진행, 포스터 제작과 배포, 슬로건 지정, 에세이쓰기, 서평공모전 등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 선정 *8월 12일 국립사서의 날, 11월 14일은 국립도서관의 날 별도 지정

운영방식은 요일별로 주제나 테마를 정해 운영하거나 각각의 전국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역시 요일별로 중점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 외에는 작가 초청 강연, 책 낭독, 도서관 투어, 전시, 각종 문화행사, 세미나 등을 다채롭게 구성한다.

특징은 유명인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하거나, 도서관주간 준비를 위한 유용한 템플릿 제공, 별도의 웹사이트 운영, 올해의 도서관상이나 사서상 등을 선정해 도서관과 사서들을 격려하는 사례 등이다. 또한 도서관주간 공식 개막행사 개최와 런칭 이벤트 행사를 유튜브로 제공하기도 한다.

홍보는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슬로건 지정, 의미 있는 다양한 해시태그를 이용한 SNS 활용 방식이 가장 많았다.

이렇듯 해외의 다양한 도서관주간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적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기획되고 실행된다. 캠페인을 유도하는 다양한 해시태그 활용, 각종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한다.

둘째, 도서관주간 기간 동안 요일마다 의미를 부여해 도서관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도서관인의 날, 관종별 도서관의 날, 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의 날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날을 기념하는 주제행사를 기획한다.

셋째, 도서관주간 행사를 준비하는 다양한 도서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기획, 마케팅 활동, 정치인 및 의사 결정권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언론보도 적극 활용법 등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정보를 도서관들에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넷째, 각종 시상 및 이벤트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도서관과 사서를 격려하는 상을 제정해 도서관주간에 수여하고 있어 사서들과 도서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행사추진 활성화와 마케팅 수단의 일환으로 도서관주간 실행위원회 구성과 유명한 배우 등을 위촉해 도서관주간 홍보에 적극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여섯째, 도서관주간의 역사, 콘텐츠 등을 각 나라 협회 또는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아카이빙 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

4.1 국내외 도서관주간 비교

향후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도서관주간 국내외 운영사례를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도서관주간과 해외 도서관주간을 〈표 3〉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국내 도서관주간과 해외 도서관주간은 대부분 도서관주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운영 주체가 각 나라 협회라는 점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도서관이 각각 도서관주간 행사를 주관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비슷하다. 프로그램 등도 강연회, 전시회, 작가 초청 행사, 공모전, 세미나

〈표 3〉 국내외 도서관주간 운영사례 비교

구분	국내 도서관주간	해외 도서관주간
명칭	도서관주간	도서관주간, 도서관의 날 등
역사 및 시기	1964년 시작	1954(미국), 1958(캐나다), 인도(1968) 등
2022년 시기와 주제	4월 12일-18일, 도서관, 책과 당신을 잇다	3월, 4월, 7월, 10월(각 첫째 주, 둘째 주, 마지막 주) 등으로 다양. 기간은 일주일 또는 한 달로 정함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전국도서관이 주관해 각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	각 나라 협회 주최, 부수적으로 도서관주간 실행위원회 구성, 유명인을 명예의장으로 위촉 등, 요일별로 테마를 정해 운영 또는 전국도서관이 주관해 각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프로그램	전국도서관에서 각자 이용자와의 만남, 전시회, 강연회, 북콘서트, 도서물물교환 장터 운영, 독서 사진 공모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진행, 2021년부터 도서관주간 기념행사 진행	요일별 주제를 정해 중점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 작가 초청 강연, 책 낭독, 도서관 투어, 전시, 각종 문화행사, 세미나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롭게 진행
특징 및 홍보	기존에는 행사주제 및 표어, 포스터를 선정・배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 2023년부터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 시행을 앞두고 2021, 2022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별도 홈페이지 제작, SNS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진행	유명인을 명예의장으로 위촉, 도서관주간 준비를 위한 유용한 템플릿을 제공, 웹사이트 별도 운영, 올해의 도서관상, 사서상 등을 선정해 도서관과 사서들을 격려, 도서관주간 공식 개막행사, 런칭 이벤트 등을 개최해 유튜브로 제공, 홍보는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슬로건 지정, SNS 등으로 다양한 해시태그를 이용한 캠페인 진행

등의 진행으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표어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SNS 이벤트 진행 등도 거의 유사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도서관주간은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일주일 기간 동안 요일별 테마나 주제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점이 해외 도서관주간과 차이점으로 보인다. 특히 홍보 부분은 국내와 해외의 도서관주간 사례가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지만 해외 도서관의 경우 유명인사를 명예의장으로 위촉해 각종 인터뷰나 행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주간 진행을 위한 유용한 템플릿을 각 도서관에 제공함으로써 통일성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전국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SNS 홍보 시에도 의미 있는 다양한 해시태그를 활용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매년 진행되는 해시태그 캠페인 내용 등을 아카이빙 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또한 도서관주간 개막행사나 런칭 이벤트 등을 통해 도서관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4.2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위에서 국내외 도서관주간을 5가지 부분, 즉 도서관주간의 명칭, 역사 및 시기,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주요프로그램, 특징 및 홍보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는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부분이고 명칭과 시기 등은 국내외 도서관이 큰 차이가 없기에 국내외 도서관주간 실행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었던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프

로그램 구성, 홍보 부분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4.2.1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의 효율화 방안

도서관주간은 그동안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전국도서관과 함께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될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에 제42조(도서관의 날)이 신설되면서 도서관의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주간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등이 부족해 전국도서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체로 도서관주간 기간 동안 전국 각급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홍보하고 진행하고, 추후 행사 결과를 한국도서관협회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또한 기존 행사가 공공도서관 위주로 진행되어 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별 도서관의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도서관주간을 진행할 때 고려할 점 등에 대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외 여러 국가의 도서관주간 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될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의 일주일간 각기 다른 이슈를 반영한 주제를 정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시민, 도서관 관계자, 정부관계자, 다양한 관종 도서관과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소극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주간 및 도서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캠페인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좀 더 다양한 관종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도서관이 관종에 상관없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요일마다 테마나 주제를 정해 함께 진행한다면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개선에서는 도서관주간 추진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도서관법」 개정을 앞두고 도서관주간 홍보 부분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지원하면서 도서관주간 조직(운영)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조직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 구성도 유명인, 정치인, 언론인, 문화계 인사 등을 다양하게 포함해 여러 관점에서 도서관주간 행사 내용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주간 행사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템플릿 등을 제작해서 전국도서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도서관들의 도서관주간 행사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2.2 행사프로그램 구성방식의 변화

그동안 도서관주간 행사프로그램은 전국도

서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해 왔다. 일주일간 전국 각 도서관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행사는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관주간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성 전국 공동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등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비대면 프로그램들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보다는 강연, 전시,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의 행사프로그램 구성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주간을 주최하는 한국도서관협회와 이를 후원하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함께 도서관주간 행사 프로그램 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서관주간만의 특별 공통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도서관주간을 주관해 온 각급 도서관들에게 프로그램 관련 필요사항, 지원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진행해왔던 각급 도서관의 행사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과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 등을 분석해 보완점과 향후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연중 도서관을 알리고 차 년도 도서관주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3년 처음 시작할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주간 준비와 함께 특별한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도서관주간은 도서관주간 기간 중 하루를 도서관인의 날로 정해 도서관인들을 격려하는 날이 있기도 한데, 2023년 시작되는 도서관주간 첫날인 도서관의 날에 도서관과 사서들을 포함한 도서관인을 격려하는 여러 의미있는 상 수상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우수도서관상, 한국도서관상[5] 등 도서관과 사서들을 격려하는 포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좀 더 폭넓은 기준으로 분야별 다양한 상을 제정해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자축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구성, 각종 경연대회 프로그램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도서관주간 공식 개・폐회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IFLA 회장, 지역 인사, 도서관장 등이 유튜브 인사말을 통해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서관주간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하고 있어 국내 도서관주간 행사기획 시에도 반영해볼 만한 사례이다.

4.2.3 홍보 다각화 및 평가 방안

지금까지 도서관주간 홍보는 주최기관인 한

5) 2022년에는 제54회 한국도서관상을 그동안의 2월 정기총회 때 시상하던 것에서 4월 12일 도서관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상한다. 이는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2023년부터는 한국도서관상을 정부 포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발전할 것인지 방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국도서관협회와 주관기관인 각급 도서관 모두 예산 부족으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작해 전국도서관에 배포하는 포스터와 표어 게시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외에 보도자료 배포 등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각급 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행사 홍보를 하다 보니 하나로 연결된 전체적인 홍보 창구가 제대로 없었고, 홍보방식도 홈페이지 게시, SNS 게시 정도였기에 대국민 홍보는 많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도서관주간의 중요성, 의미 등은 제대로 알려지거나 홍보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현재 전국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도 눈에 띄는 프로그램들을 분야별로 추천해주는 사이트 제공, 도서관 간 다양한 소통창구, 이용자들의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도서관주간에 대한 아카이빙 등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도서관주간 행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한국도서관협회에 그 결과를 각급 도서관들이 제출하는데 도서관들의 참여가 소극적이고 결과 활용에 대한 방안 공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도서관주간 행사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대국민 참여 행사로 이끌기 위해서는 홍보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행사기획만큼 중요한 것이 행사에 대한 홍보이다. 이에 2023년부터 「도서관법」을 근거로 한 정부 주도 도서관주간과 도서관의 날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마케팅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의 도서관주간의 여러 가지 전국적 콘텐츠를 아카이빙 하고, 그 중 중요하거나 모두가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콘텐츠들을 따로 구성해 홍보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도서관주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분석결과를 홍보자료에 활용해 시민들에게 추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도서관주간 행사를 진행하는데 도서관주간의 첫날인 4월 12일만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6일에 대한 테마와 주제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추후 도서관주간 기간 중 날짜별, 주제별로 설정된 해시태그를 이용해 전국도서관들이 SNS에 도서관주간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행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이용자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에 2021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주간 홈페이지(http://www.kla.kr/jsp/libraryweek)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 다각화와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도서관주간에 대한 평가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그동안 도서관주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는 내・외부적으로 많지 않았다. 도서관주간에 대한 운영주체 기관 및 실행위원회 등의 자체평가, 행사를 주관한 도서관 및 도서관 직원 평가, 행사참여자들의 평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평가체계 구성과 방법이 필요하며 설문조사, 인터뷰, 오픈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상시 의견 전달 창구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평가결과를 차 년도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각 나라 도서관주간의 역사나 유래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서관

사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도서관주간을 제정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주간을 마케팅 관점에서 잘 활용하면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주간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을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행사프로그램 구성, 홍보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도서관주간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의 개선,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한 창의적이고도 흥미 있는 지속적 행사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마케팅 관점에서의 전략 개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도서관주간의 다양한 콘텐츠 아카이빙을 비롯해 도서관주간 날짜별 테마나 주제 설정 등을 통해 전국도서관이 함께 도서관주간을 홍보하며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주간 사례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1년 12월 7일 공포된「도서관법」전부개정법률에 포함된 도서관의 날이 신설되면서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게 되었다. 그동안 도서관주간은 전국도서관이 각자 도서관 홍보와 함께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새로 시행될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 행사기획을 위해 도서관주간의 의의와 역사에 대한 정리,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 발굴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도서관주간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 행사기획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외 도서관주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도서관은 도서관주간 운영을 위한 홍보예산 등의 부족으로 전국도서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개별도서관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다 보니 대국민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외 도서관은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상시적 홍보 및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서관주간 행사를 테마별로, 관종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도서관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템플릿 등을 도서관에 제공함으로써 행사를 주관하는 도서관들이 템플릿을 활용해 도서관주간 행사를 쉽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각종 시상 및 이벤트도 활발하게 진행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그중에서 무엇보다 도서관주간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서들과 도서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도서관주간의 취지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마케팅 관점에서 도서관주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도서관주간 사례를 통해 분석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사례 시사점에 대한 반영 등이 필요하다. 2023년 「도서관법」에 의해 처음 시행하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명예 홍보대사 활용, 이색적인 기념행사, 전국동시 캠페인, 아카이빙, 상시 홍보 채널 및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행사 운영방법 모색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도서관법. 법률 제18763호.

[2]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출판연구소 (2021).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3] 이용남 (1994). '독서주간'을 '독서의 달'로. 圖書館文化, 35(4), 2.

[4] 한국도서관협회 (1959.5.5.). 스와이거 女史 講演會 盛況. 図協뉴-스, 2.

[5] 한국도서관회 (1960). 美國의 圖書館週間. 도협월보, 4(1), 26-27.

[6] 한국도서관협회 (1964a). 圖書館週間設定 趣旨文. 도협월보, 5(1), 57-59.

[7] 한국도서관협회 (1964b). 事務日誌. 도협월보, 5(3), 37-38.

[8] 한국도서관협회 (2010). 도서관주간의 의의와 역사. 도서관문화, 51(5), 76-77.

[9] 한국도서관협회 (2015). 제51회 도서관주간. 도서관문화, 56(3), 16-18.

[10] 한국도서관협회 (2019.3.22.). 제55회 도서관주간 행사 계획서(안). 출처: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1854?currentPage=7&title=&notiType=EV

[11] 한국도서관협회 (2021.3.31.). 제56회 도서관주간 행사 계획서(안). 출처: https://blog.naver.com/kla1945/222293728050

[12] 한국도서관협회 (2021). 제57회 도서관주간 행사 결과보고.

[13] ALA homepage (2022). National Library Week. Available: https://www.ala.org/conferencesevents/celebrationweeks/natlibraryweek

[14] ALIA (2021). Library and Information Week. Available: https://www.alia.org.au/Web/Events-and-Programs/Library-Information-Week/Web/Events/Library-and-Information-Week/LIW-2021.aspx?hkey=f75e3f64-0590-41bd-9fc4-b32c97616df0

[15] Alice Nuttall (2020. Jun 8). Authors, Austerity and the UK's Save our libraries campaign. Available: https://bookriot.com/uks-save-our-libraries-campaign/

[16] Bibliotheksportal de (2018). Tag der Bibliotheken. Available: https://bibliotheksportal.de/2018/11/27/tag-der-bibliotheken/

[17] Büchereiverbandes Österreichs (2022). Österreich liest. Treffpunkt Bibliothek. Available: https://www.oesterreichliest.at/allgemeines

[18] DBV (2021). Tag der Bi-blio-the-ken. Available: https://www.bibliotheksverband.de/tag-der-bibliotheken

[19] CFLA-FCAB (2021). Canadian Library Month. Available: https://cfla-fcab.ca/en/programs/cdn-library-month/

[20] CILIPS (2022). Libraries Week. Available: https://www.cilips.org.uk/advocacy-campaigns/libraries-week/

[21] CILIPS (2020). #Library5 2020. Available: https://www.cilips.org.uk/advocacy-campaigns/libraries-week/libraries-week-2020/library5-2020/

[22] EBLIDA (2022). Library Days in Europe. Available: http://www.eblida.org/activities/kic/library-days-in-europe.html

[23] Greg Landgraf (2018, March 1). The 60-year history of National Library Week. Americ libraries. Available: https://americanlibrariesmagazine.org/2018/03/01/national-library-week-60th-anniversary-libraries-lead/

[24] kvbowenpallylibrary (2020. Nov 13). National Library Week 14th-20th November 2020 Available: https://kvbowenpallylibrary.home.blog/2020/11/13/national-library-week-14th-20th-november-2020/

[25] LIASA (2021). SALW 2021 Launch Programme. Available: https://www.liasa.org.za/page/salw2021_prog

[26] LIASA (2022). SALW 2022. Available: https://www.liasa.org.za/page/2022salw

[27] LIASA (2022). South African Library Week. Available: https://www.liasa.org.za/page/salw

[28] LIASA (2022). South African Library Week 2022 Launch - 14 March 2022. Available: https://youtu.be/o12Je5vLEsY

[29] Librarianship ca (2021). Canadian Library Month. Available: https://librarianship.ca/features/canadian-library-month/

[30] Libraries Week homepage UK (2021). Get ready for Libraries Week. Available: http://librariesweek.org.uk/libraries-hub/get-ready-for-libraries-week/

[31] Libraries Week homepage UK (2022). Libraries Week. Available: http://librariesweek.org.uk/

[32] Libraries Week homepage UK (2022). Libraries Hub. Available: http://librariesweek.org.uk/libraries-hub/

[33] Naplesisterlibraries (2022). International Library Days. Available: https://www.naplesisterlibraries.org/what-we-do/international-library-days/

[34] Redazione Rome Central (2018. Settembre 12.). Bibliopride 2018: Giornata nazionale delle biblioteche. Available: https://www.romecentral.com/bibliopride-2018-giornata-nazionale-delle-biblioteche/

[35] Sitecentrallibrary (2013). 14th-20th November are celebrated as National Library Week all over India. Available: https://sitecentrallibrary.wordpress.com/2013/11/14/14th-20th-november-are-celebrated-as-national-library-week-all-over-india/

[36] Starofmysore (2021 November 16). National Library Week Launched. Available: https://starofmysore.com/national-library-week-launched/

[37] Suomen kirjastoseura (2022). Kirjaston päivä.Available: https://suomenkirjastoseura.fi/kirjaston-paivaa-vietetaan-19-3-ympari-suomen/

[38] Sven Giese (2013. November 5). Der bundesweite Tag der Bibliotheken in Deutschland am 24. Oktober. Available: https://www.kuriose-feiertage.de/tag-der-bibliotheken/

[39] The Guardian (2011. Feb 5). Save Our Libraries day - as it happened. Available: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culture-cuts-blog/2011/feb/05/save-our-libraries-day-live-coverage

[40] VISHNU (2014). National Library Week Celebrations. Available: https://vishnu.edu.in/main_updates_news.php?sno=179

[41] Wikipedia (2021). Karl Benjamin Preusker. Available: https://de.wikipedia.org/wiki/Karl_Benjamin_Preuske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Library Law (2021). Section No18763.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2021).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3] Lee, Yongnam (1994). Reading week as reading month. KLA Bulletin, 35(4), 2.
[4] Korea Library Association (1959.5.5.). The success of mrs. sweiger's lecture. KLA News Letter, 2
[5] Korea Library Association (1960). National library week. KLA Bulletin, 4(1), 26-27.
[6] Korea Library Association (1964a). Libraries week setting. KLA Bulletin, 5(1), 57-59.
[7] Korea Library Association (1964b). News of the secretariat. KLA Bulletin, 5(3), 37-38.
[8]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significance and history of library week. Doseogwanmunhwa, 51(5), 76-77.
[9]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5). 51st library week. Doseogwanmunhwa, 56(3), 16-18.
[10]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9.3.22.). 55th Library Week Event Plan(Draft).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1854?currentPage=7&title=&notiType=EV
[11] Korea Library Association (2021.3.31.). 57h Library Week Event Plan(Draft). https://blog.naver.com/kla1945/222293728050
[12] Korea Library Association (2021). 57th Library Week Event Results Report.